

광양전어, 전국 미식이 입맛 사로잡기 나선다

LOCAL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시, 내달 12~14일 망덕포구 일원서 ‘전어축제’ 개최
맨손 전어잡기·스탬프 투어·사생대회 등 행사 풍성

광양의 대표 축제인 광양전어축제가 전어의 참맛을 즐기는 미식가들의 발길을 유혹한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에서 ‘별해는 밤! 전어가 전하는 바다의 향연’을 주제로 제24회 광양전어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맨손 전어잡기

체험, 진월 관광 스탬프 투어, 전국 초등학생 대상 백일장·사생대회가 있다. 이외에도 배알도 섬정원과 별해는 다리의 야간 경관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 첫째 날인 다음달 12일에는 혼성 3인조 포크그룹 ‘판도라’의 공연과 전어가요제 예선이 펼쳐진다.

13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전국 초등학생 대상 백일장·사생대회, 가장 높은 인



기를 자랑하는 전어잡기 체험, 전남도 무형문화재 ‘전어잡이 소리’ 시연, 해상 전어잡이 배 시연, 초대 가수 손빈아·목비 등의 축

어잡이 시연’이 진행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정병욱 가옥 앞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하루 3회씩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는 음악 버스킹’이 열려 라이브 연주와 시 낭독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전어 한 접시를 맛볼 수 있는 ‘진월 관광 스탬프 투어’를 통해 볼거리, 즐길 거리, 맛볼 거리 모두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체험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장인 망덕포구는 광양 진월IC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국도 2호선을 이용하면 접근이 용이하다. 축제 기간 동안 망덕 먹거리타운 거리 일

대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전어조형물 이 있는 행사장 입구 인근의 임시 주차장과 진월초등학교 뒤편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기준 광양전어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전어축제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무더위 대비 그늘막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광양의 대표 축제로서 가족, 친구, 연인 모두가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광과 고소한 전어를 함께 즐기는 즐거움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함평, 마음안심버스 운영
수해 군민 심리회복 지원

함평군이 집중호우로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심리 회복 지원에 나섰다.

함평군은 최근 함평읍, 학교면 등 수해 피해 지역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안심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음안심버스는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군은 2022년부터 군민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심버스를 운영해 왔다.

특히 의료취약 지역을 직접 방문해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심리·정서 검사, 1대1 개인상담, 재난 트라우마 대응 교육, 응급 심리지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상담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투입돼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이 수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치유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영광,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재정 확보·플랫폼 구축 호평

영광군은 최근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4년 이상 경과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추진체계, 사업 운영 및 성과, 특성화 사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영광군은 재정 확보 및 운영의 안정성,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 추진체계, 참여 기반의 사업 운영과 군민 체감도 제고, 군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세일 군수는 “영광군은 앞으로도 고령화, 디지털 격차, 지역소멸 등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 생활 문제 교육 확대, 직업교육 연계 등 실효성 있는 평생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고흥, 섬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 개시
11월까지 시범 운영…음식·긴급 의약품 등 전달

고흥군은 지난 5일 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돼 항로 개설, 인프라 구축, 배달 웹 개발 등 드론 배송 서비스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이날 도양읍 녹동신항에 구축된 드론배송센터에서 열린 시연회에는 공영민 고흥군수, 박선준 전남도의원,

고흥군의회 의원, 드론업체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드론 배송은 올해 11월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상하도, 하화도, 득량도, 거금해양낚시공원,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등 4개 드론 배송 거점과 총 12개 배달 지점을 중심으로 운용된다.

군이 자체 개발한 드론 배달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배달 음식, 생필품, 식음료 등을 주문할 수 있으며, 긴급 의약품 배송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 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



고흥군은 최근 도양읍 녹동신항에 구축된 드론배송센터에서 드론배송 시연회를 가졌다.

장성, 휴대용 방역장비 무상대여 서비스

장성군이 ‘휴대용 방역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휴대용 방역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는 휴대용 방역소독기와 친환경 소독약품을 3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성군민만을 대상으로 했다가 이달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형 휴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범위를 확대

했다. 장비 대여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시설 관계자는 장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061-390-7174)에 연락해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군은 방역소독기 사용법, 주의사항 등 간단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장비를 대여해 준다. 장성=이형범 기자 lhb6699@



여수시는 최근 위생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 식당, 숙박업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절 실천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여수, 위생불량·불친절 음식점 강력 대응

잔반 재사용 업소 단속…식품위생감시원 등 42개반 합동점검

여수시가 지역 내 음식점에서 발생한 남은 반찬 재사용 사례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 교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서 앞서 발생한 유튜버 불친절 사례에 이어 시민과 관광객의 위생 불안감과 실망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시는 즉시 해당 업소에 대한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과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역 내 전 음식점

소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와 친절도를 대대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1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2개반 84명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준수, 식재료 보관·유통기한 준수, 주방 청결 상태,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이다.

아울러 시는 위생불량·불친절 민원업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친절 응대, 1인 혼밥 식탁 마련, 1인 방문 시 2인분 주문 강요 금지 등 친절 서비스 향상 교육도 병행해 음식문화 수준

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입장을 통해 음식점·숙박업 권역별 현장 방문 친절 교육 강화, 불친절 민원 접수 업소 중점 관리 및 모니터링 확대, 1인 손님 응대 강화를 위한 메뉴얼 제작 및 1인 이용 가능 음식점 지정, 숙박 요금 안정화를 위한 사전신고제 확대, ‘음식점 3정 실천 운동’ 협력 캠페인, 음식점·숙박업 영업자 및 종사자 대상 친절 응대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정기명 시장은 “위생불량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며 “이번 대대적인 위생·친절 점검을 통해 음식문화 전반의 신뢰 회복과 관광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희 기자 swg3318@

약국출시

한국인은 K-낙산균

국내 최초 특허
한국인 유래 특허 균주 함유

VHCME+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문의전화 1588-8529

제조원 엔피케이(주) | 유통판매원 비타민하우스(주)